



[종합]  
코인정리 후폭풍  
코인 운영사  
강경대응 예고  
04



Life

[라이프]  
식품업계  
직영몰 차별화  
유통채널 추격  
니



# 백로는 물놀이하고 시민들은 활기 가득 불광천서 ‘푸룻푸룻’ 에너지 충전하고 가세요

## 되살아나는 서울

### 00 불광천

서울 은평구에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가는 연신내역이 있다. 역명은 과거 불광동에 있던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지명유래집과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인조반정 때 거사에 함께하기로 한 장단부사 이서(李曙)가 약속장소인 이곳에 늦게 도착해 ‘지각한 이서’라고 놀리던 것에서 비롯된 말로, 신하를 늦게 만난 개천이라는 뜻에서 연신내(연신천·延臣川)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불광천의 옛 이름이 연신내다. 삼각산 비봉에서 발원한 불광천은 은평구 불광·대조·역촌·신사동을 지나 서대문구 북가좌동을 거쳐 마포구 성산동에 이르러 홍제천에 합류, 한강으로 들어가는 약 9km 길이의 하천이다. 청계천처럼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건천이었던 탓에 오·폐수가 유입되면 악취가 진동했으나 2002년 우수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지하수를 끌어오면서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뀌었다.



이달 7일 오후 시민들이 불광천에서 산책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청동오리·가마우지·백로 날아들고 잉어 헤엄치는 불광천

지난 7일 오후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불광천을 방문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새철역 2번 출구로 빠져나왔다. 살이 통통하게 찐 비둘기 떼가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의 말이 적힌 플래카드를 뒤로 하고 불광천 산책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총 4개로 구분돼 있었다. 지하철역 쪽으로는 바닥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전거 전용로가, 하천 쪽으로는 초록색을 띤 보행자용 산책길이 양방향으로 나 있었다.

이날 불광천을 찾은 홍기수(74·이하 가명) 씨는 “은평구에 50년 넘게 살면서 이 길을 매일 같이 오갔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저기에 가마우지도 막 날아다닌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선사시대에 살았을 법한 익룡갈이 거대한 검은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창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홍 씨는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마우지 목에 줄을 매달고 사냥개마냥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 말해주면 뺨 치지 말라고들 하는데 여기 와서 가마우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제야 좀 믿어준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가마우지가 떠난 자리에는 하얀 빛깔을 한 백로가 남아 부리로 털을 고르고 있었다. 가마우지나 백로 같은 새들이 왜 이리 많은지 궁금해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속을 들여다봤다. 하천 안에서 수초 뒤에 몸을 숨긴 팔뚝만 한 잉어 여러 마리를 발견했다.

이달 7일 불광천에서 만난 백동희(38)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잠깐 들렀다”면서 “청동오리랑 백로를 서울 한복판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즐거워했다.

백 씨는 “다리를 철봉 삼아 알 푸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귀엽

다”면서 “이따 아무도 안 볼 때 따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광천에서는 활기 넘치는 50~80대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셋노란 등산복을 입고 경보를 하는 어르신부터 신업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백발의 노인까지 운동에 열중한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 ◆환경 개선 필요

불광천을 따라 은평구 응암3동에서 서대문구 북가좌2동 방향으로 내려왔다. 산책로에서 반려견이 개천 풀숲으로 내려간 주인을 보며 ‘왕왕’ 짖어대기 시작했다. ‘거기는 위험해 보이니 얼른 나오라’는 소리로 들렸다. 남색 차양모자를 푹 눌러 쓴 70대 노인이 빨간색 꽃 한송이를 꺾어 손에 쥐고 나왔다. 일행 중 한 명이 “그게 이제 막 피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갔다 보다”면서 “우리 아들 집 앞에 털양귀비 많은데 좀 갖다 줘?”라고 물었다. 개천 옆 풀 무더기에서 붉은 꽃을 들고 나온 이 할머니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며 흡족해했다.

꽃 한송이에서 행복을 발견한 어르신들을 지나쳐 증산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베레모를 쓴 노인사가 개천 다리 위에서 목욕재계하는 비둘기 한 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새들은 물속으로 고개를 푹 담갔다가 하늘로 머리를 획 쳐들기를 반복하며 몸에 물을 뿌려댔다. 날이 더워 열을 식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신사1동에 사는 윤학일(64) 씨는 “저 지저분한 비둘기들 좀 보라”면서 “우리 은평구 쪽은 좀 나는데 서대문구나 마포구로 내려갈수록 개천물이 점점 더러워진다. 특히 다리 밑에서 역한 냄새가 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뉘시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여기 있는 잉어나 청동오리, 백로 다 더러운 물에서도 잘만 사는 애들인데 그거 좀 나왔다고 물이 깨끗해졌다고 어찌고저찌고 떠드는 거 정말 웃긴다”며 코웃음 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불광천을 찾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 7일 오후 불광천 풀숲에서 털양귀비를 발견한 한 어르신이 꽃 한송이를 꺾어 손에 쥐고 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올림픽 축구대표팀, 22일 재소집... 30일 최종엔트리 확정 /사진 뉴시스  
▲ KBL ‘승부조작’ 강동희 전감독 재심의 기각...제명 유지

▲ ‘돌아온’ 최지만, 선구안은 여전...북귀전에서 볼넷 2개  
▲ 세계랭킹 1위 고진영, 명예회복 나선다...시즌 첫승 사냥



▲ KLPGA 4승 쓸어담은 박민지, 세계랭킹 27위→22위 도약 /사진 뉴시스  
▲ ‘메시 프리킥 골’ 아르헨티나, 칠레와 1-1 무승부